

도서관탐방

국내 최초의 청소년 과학포털사이트 "LG사이언스랜드"를 운영하는

LG상남도서관을 다녀와서

"도서관문화" 1994년에는 1년 치를 통틀어 보아도 이 단어는 없었다. 그러나 2004년 현재는 1쪽에만도 수 십 개가 보인다. 그 단어는 바로 "디지털"이다. 바로 그 디지털 붐이 일기 시작하던 당시 LG상남도서관은 국내 최초의 디지털도서관으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내 도서관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LG상남도서관의 핵심서비스인 원문전송은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도서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번 달에는 LG상남도서관을 찾아가 보았다. ■ 편집자 주



(LG상남도서관 전경 이 도서관은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개인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로 건축가 김수근 씨가 설계했다. 1968년부터 1994년까지 창업주의 아들인 上南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사택으로 사용되다 1996년 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해 일반에 개방되었다.)

LG상남도서관에는 서그가 없다?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에 있는 LG상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도서관의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열람실도 없고 서가

도 없다. 물론 열람할 책도 없다. 이는 LG상남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소위 '디지털도서관'이라 함은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도서관에 갈 필요 없이 어디에서든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자료를 검색, 필요한 자료는 네트워크상에서 다운로드받고, 필요하다면 프린터로 뽑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때, 1996년 국내 최초의 디지털도서관을 표방하고 개관된 LG상남도서관이 기존 도서관과 다른 실내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LG상남도서관의 그 많은 자료는 어디에 있을까. 1층 전산관리실에 있는 '전자서고'가 답이다. 겉보기엔 큰 상자들일 뿐인데 이것들이 디지털도서관을 구성하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말하자면 디지털도서관의 수령탑인 것이다.

이 도서관은 LG그룹의 주력 분야인 화학·전기·전자 분야의 학술정보를 수록한 CD-ROM

데이터베이스를 범세계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전문 학술잡지와 국제학술회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면 굳이 도서관에 갈 필요 없이 가정이나 연구실에서 PC를 이용하여 도서관 홈페이지(www.lg.or.kr)에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원문까지 받아 볼 수 있었던 1999년 당시 하루 평균 4,000명 정도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며 3년간 온라인 자료제공 건수가 300만 건에 달했다.

〈도서관 주요 현황〉

(2004. 4. 현재)

회원수	75,000여명	
홈페이지 접속수	4,920,000여회	
DB제작현황	지널	1,260,348건
	프로시딩	397,347건
	강의자료	34,561건
	리소스 DB	4,758건
	기타	13,861건
	합계	1,710,87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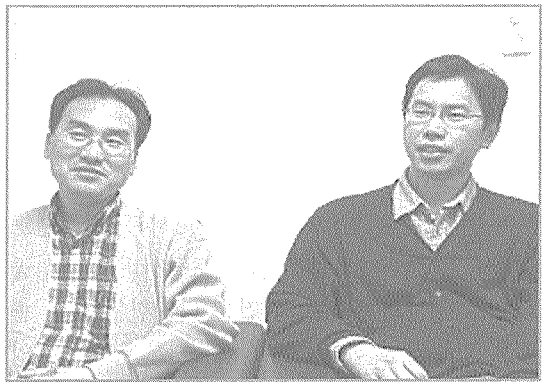
**원문서비스 중심에서
과학기술정보 포털서비스로**

2000년 12월 도서관 사이트는 과학기술전문 포털사이트(‘엘리트’, ELIT/Electronic Library Information Tour)로 전면 개편된다. 개편의 이유는 물론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온라인 전송이 금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형태 변화도 큰 몫을 한다(원문 전송 서비스는 우편신청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www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던 1996년 당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도서관의 등장은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도 원문 정보가 언제까지나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원문서비스 중단의 대안으

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로 현재의 포털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정보 획득에만 목말라 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웹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도서관 보유 자료는 물론 다른 기관이 보유한 DB와 각 대학의 강의자료·연구비 지원정보·장학금 지원정보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함께 화상회의·웹문서의 실시간 번역 등의 부가서비스까지도 원스톱으로 제공받고 싶어하지요.” 도서관 개관 초창기 멤버인 심우섭 팀장(사진)의 말이다.



〈좌 : 심우섭 팀장, 우 : 배경재 사서〉

**국내 최초인 청소년 과학 포털
사이트 오픈**

지난 해 LG상남도서관은 2년 동안 약 5억원을 투자해 구축한 과학 포털사이트인 “LG사이언스랜드”(http://www.lg-sl.net)를 개설하게 되는데 청소년 대상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국내 최초라고 한다. “LG사이언스랜드”는 청소년들이 과학 정보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G상남도서관(www.lg.or.kr)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설계되어 있는데, 국내외의 우수한 20여 개의 과학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의 키워드 입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과학정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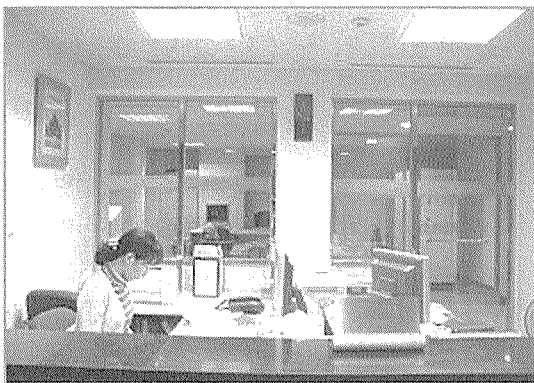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주제별로 제공하기도 한다.

〈과학 사진 콘테스트〉 〈과학송 핸드폰 벨소리 서비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기획되고 있어 이공계 기피 현상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질의 콘텐츠 확보로 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 모델 구축

기존 LG상남도서관 업무의 대부분이 원문제공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포털사이트 “엘리트”와 “LG사이언스랜드”가 각 각 절반씩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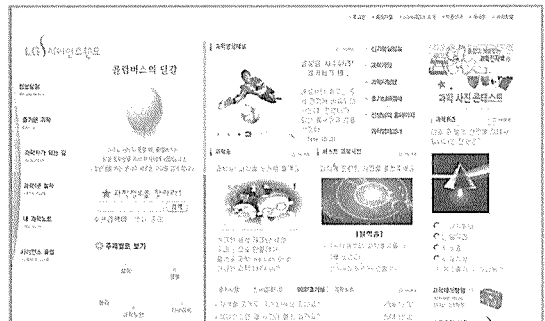
과거 국내 최초의 디지털도서관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LG상남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새로운 모델인 포털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관건은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 확보라고 한다. 도서관의 기본은 콘텐츠임을 새삼 실감한다. [글: 박경아 기획·홍보팀장, 사진: 심효정]



〈1층 정보상담실. 정보 검색 전문가가 정보 상담에 응하며 도서관 이용에 대한 안내도 한다. 방문 이용자나 전화 문의에 대한 안내보다 인터넷 참고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



〈이용률이 높은 강의자료서비스는 국내의 모든 이공계 대학의 강의자료 및 공개 발표 논문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10만여 건의 DB가 구축되어 있다.〉



〈과학정보 통합사이트인 “LG사이언스랜드”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2층 시청각 세미나실. 비디오 프로젝터와 100인치 스크린을 이용해 TV, VTR, LDP, PC 등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다용도 세미나실. 적정 이용 인원 40명. 신청시 무료 이용 가능〉